전단향 품은 '목조' 불교유물들

동국대박물관 2018 특별전시
'전단지향-나무에서 피어오른 향기'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리 불교유물 중 목조유물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동국대박물관(관장 김봉건)은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동국대 서울캠퍼스 내 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전단지향(旃檀之香)-나무에서 피어오른 향기' 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우리나라 중요 목조불교유물들이 전시되는데, 동국대박물관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1891년 '석굴암중수상동문'과 국내에서 보기 드문 조선 후기의 '보타전' 목조실감을 포함해 총 39건의 유물 5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불교를 상징하는 불상의 조성이 목조로 시작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한국의 유물 중에는 불상을 비롯해 목조 불교유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목조'에 주목한 관련 전시가 없었던 점을 또한 주목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 마야부인에게 설법을 하기 위해 도리천에 올라갔을 때, 코삼비국의 우전왕은 부처님이 그리워 처음으로 불상을 조성했다. 그 때 쓰인 것이 '전단(旃檀)'이라는 나무였다. 이후 전단은 불상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단의 향은 병든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약으로도 인식되어왔을 만큼 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나무로 불리고 있다.

우리 불교에서도 역시 나무는 불교문화를 꽃피운 '재료'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신앙의 형태와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나무는 사찰의 불전과 가구, 불상, 불교 공예, 경판 등에 사용하는 불가결의 재료이며 보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형물 제작을 위한 최상의 재료이다. 이번 전시는 '전단지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나무로 만든 불교유물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돕고자 마련됐다.

동국대박물관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아우르는 귀중한 목조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물은 고려말-조선초로 추정하는 목제 사리호 및 사리함,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 조선 1620년 목조보살입상, 조선 후기 아미타삼존불감과 목조나한상, 목조동자상, 경판, 다리니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 동국대박물관이 마련한 전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마음에 부처님을 새기다'는 경전을 조성하기 위한 '경판'을 테마로 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경전은 지역을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특히 나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판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인 불국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무구정광대다리니경〉(8세기 중엽)을 시작으로 꾸준히 제작된다. 해인사 소장 고려 〈팔만대장경〉은 거란과 몽고의 침략을 불력으로 물리치고자 집대성하여 조성된 목판이며, 조선시대에는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등 다양한 경전이 왕실의 간경도감이나 전국의 사찰에서 지속적으로 조성된다.


목조보살입상


보타전 목조감실


송광사 흑단목경패(보물 175호)

△제2장- '깎고 다듬다'는 '불상'을 테마로 한다. 부처님의 모습을 깎고 다듬는 일은 불심을 일으키는 방편의 하나이기도 하다. 부처님을 만드는 재료는 돌, 나무, 흙 등 다양하며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만든 이의 불력을 통해 완성한 부처님의 모습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구현할 수 없는 숭고한 불사이다.

△제3장 '꾸미고 장엄하다'는 불단과 불단 위에 올려진 불패, 소대, 경장, 촛대 그리고 상부의 닫집 등 불전 내에 봉안된 '불교공예품'들을 테마로 한다. 현존하는 대다수 불전 내의 불교공예품들은 나무로 제작되었으며, 장엄과 실용의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재료로 알려져 있다.

△제4장 '마음을 담아내다'는 출가자가 사찰에서 수행하거나 불교의식을 행할 때 필요한 불구(佛具)를 테마로 한다. 불구는 주로 금속이나 나무로 제작된다. 이 때 제작된 불구는 의식법구, 공양구, 생활용구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 석장, 경상, 목탁과 염주 등은 출가자의 수행생활에 필요한 용구로써 나무로 제작한 예가 상당수 전한다.

이번 전시의 대표유물로는 〈'보타전(寶陀殿)' 목조감실〉 〈목조보살입상〉 〈목조지장보살반가상〉 〈송광사 목조경패〉 〈석굴암중수상동문〉 등이 있다. (02)2260-3722.

사라져가는 '마을'과 '사람'의 의미

이호신 특별전 '마을진경',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화여대박물관

사라져가는 마을과 사람들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가 열린다. '생활산수화'라는 독자적인 장르와 화풍을 추구해온 이호신 화백이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층 전시관에서 특별전 '마을진경'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누대의 터-고창 상갑리 고인돌 마을에서〉(1991) 등 국내의 여러 지역과 사람들의 모습 뿐 아니라 고구려 옛 유적지인 중국 집안과 환인지역을 그린 〈오녀산성의 밤〉과 같은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호신 화백의 '마을' 속엔 전통 촌락들과 그 성을 담고 있는 자연의 유기적 관계가 진하게 스며있다. 그것은 작가가 현장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사진이나 자료 등을 이용해 편한 자리에서 편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산에 올라 그곳에서 바라보는 진경을 그리고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옮겨다니며 본 사람들을 그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라본 대로 그려낸 그림은 생물학적 인체의 눈과 공학적 기계가 담아낼 수 없는 작가만의 관점으로, 조선 후기의 화가들이 사생을 토대로 마음속에서 자연을 재구성했던 것처럼 산수와 사람의 마을을 재구성한다. 이호신 화백은 그 동안 사생과 사유를 통한 사의(寫意)를 추구하며 전국의 마을을 찾아 그곳의 자연과 사람들을 화폭에 옮겨왔다. 그는 마을의 참 모습을 그리고자 현장 스케치를 바탕으로 그 지역을 조감하는 종합적인 구도를 선보인다. 이는 작가가 추구한 새로운 마을의 진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호신 화백은 지난 2015년에 마을과 사람들을 그린 작품, 화첩, 스케치북 등 269점을 이화여대에 기증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이화여자대학박물관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증 작품(1990~2011)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마련한 전시다. (02)3277-3152. 박재완 기자


충주 단월 달래강의 밤

"우리 모두가 약사여래"

현정오 스님 개인전 '본래면목 노닐다'
서울 인사아트센터 11월 21~26일

'당신은 부처님이에요' 연작 시리즈로 알려진 현정오 스님이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아홉 번째 개인전 '본래면목 노닐다' 전을 연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이는 스님의 그림은 보다 깊이 존재의 근원에 다가가려 애쓴 흔적들이다. 그리고 그 흔적의 중심에는 약사여래가 있다. 작가는 오랜 동안 지병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약사여래를 그리며 무사히 지나왔다. 그래서였을까. 작가는 더욱 근원에 다가가고 싶어졌다. 작가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며 그림으로 말한다. 일체 중생의 고단한 심신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픈 고통을 치유해주는 약사여래불은 바로 나 자신이며 우리 모두라고.

이번 전시에 발표하는 작품은 모두 36점으로 약사여래불의 화현이 중생과의 관계성에 머물지 않고 삼라만상과의 교감으로 확장하여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하나이고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라는 커다란 외침으로 확장되고 있다. (02)736-1020. 박재완 기자


약사여래불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풍탁 大 140㎜ × 200㎜
풍탁 中 110㎜ × 160㎜
풍탁 小 85㎜ × 135㎜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이제 처마에도 연꽃을 달자!
연꽃 풍경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